

전일동향

전일대비 0.90원 상승한 1,369.10원에 마감

14일 환율은 전일대비 0.90원 상승한 1,369.1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80원 하락한 1,367.4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장 초반 결제수요가 물리며 1,370원을 일시적으로 상회했다. 다만 상단에서는 네고물량에, 하단에서는 결제수요에 막혀 1.360원 후반의 좁은 레인지를 횡보하며 1,369.10원에 마감했다. 장중 변동 폭은 3.3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74.88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67.40	1370.40	1367.10	1369.10	1369.00
엔화	875.13	885.03	874.42	883.88	-	
유로화	1481.01	1490.40	1480.13	1489.85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13	-5.98	-13.45
결제환율(수입)	-0.85	-5.16	-11.72	-24.64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미 CPI 둔화에...1,35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3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69.1) 대비 15.30원 하락한 1,351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 CPI 둔화 및 위험선호 회복에 하락이 예상된다. 미국 4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대비 0.3% 상승하며 예상(0.4%)을 하회했다. 전년대비로는 3.4% 상승하며 직전달 3.5%보다 소폭 둔화했다. core CPI는 전월대비 0.3%, 전년대비 3.6%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전월치(0.4%, 3.8%)에서 둔화했다.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.0%로 집계되며 예상치 0.4%와 전월치 0.6%를 크게 하회했다.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둔화 추세를 보이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되었다.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2회 인하가 가격에 반영되며 미국 2년, 10년 국채금리 급락 및 달러지수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. 이에 금일 달러원 환율 또한 미 인플레이션, 소비자표 둔화를 소화하며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아울러 성장주 상승폭 확대에 따른 미 증시 호조로 위험선호가 회복되어 금일 환율 하락 분위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. 다만,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49.00 ~ 1358.5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801.09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5.3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39908, +349.89p(+0.88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3.64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507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